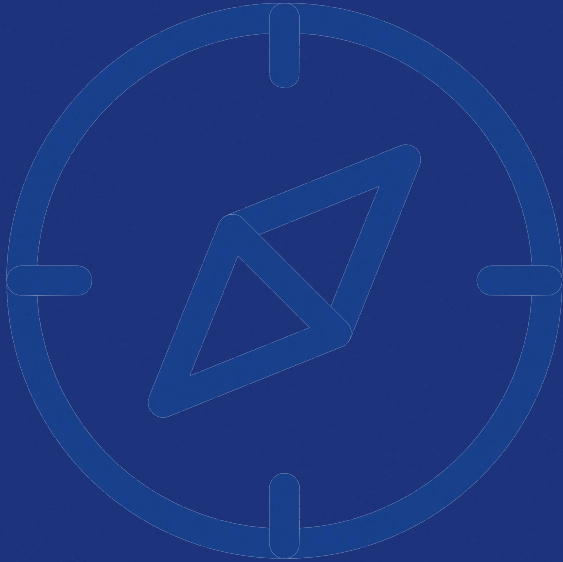


Forum

포럼

사회 정책정책연구소 소장 이 국 진 목사
기도 정책연구소 부회계 류 호 기 장로



세션 1

교회 이탈 청년 조사 결과 발표



[세션1] 결과보고서



지용근 대표
목회데이터연구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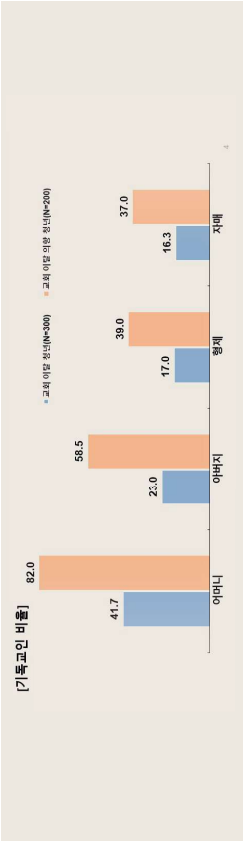
조사설계	
구분	내용
조사 대상	만 19~39세의 최근 5년 내 교회 이탈 미혼 청년 만 19~39세의 교회 이탈 의향이 있는 미혼 청년
표본 규모	300명 200명
표본 추출	유익할당 추출
조사 방법	온라인패널을 대상으로 한 온라인 조사
조사 기간	2025년 4월 28일 ~ 2025년 5월 7일(10일간)
자료 처리	수집된 자료는 통계패키지 SPSS 20.0 for Windows로 분석함

I. 개인 신앙생활

1. 가족 종교 상황

이탈의향 청년이 이탈 청년보다 부모신앙 영향력 훨씬 크게 받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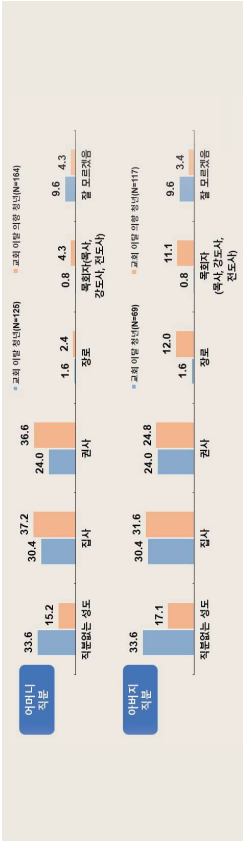
Q. 귀하 가족의 종교상황은 어떻게 되십니까? 본인과 함께 살지 않는 가족도 포함하여 응답해주세요. [단수응답]



2. 가족 종교 상황

부모님이 교회에서 직분을 맡고 있을수록 자녀들의 이탈은 낮아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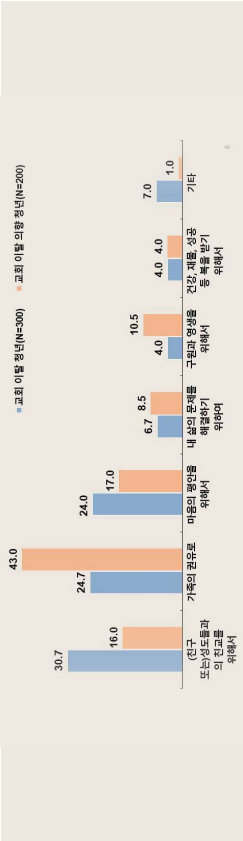
Q. 귀하 어머니/아버지의 교회 직분은 무엇입니까? [단수응답]



3. 신앙생활 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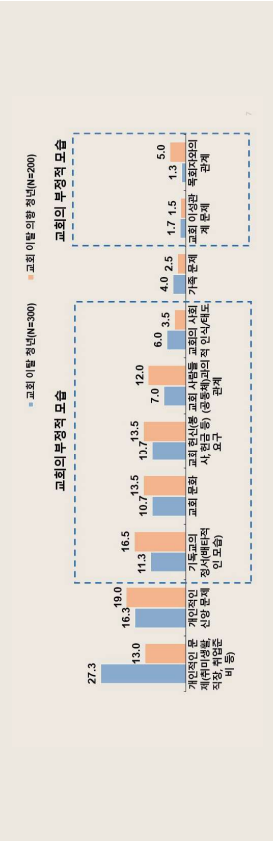
신앙생활 이유, 이탈 청년은 친구, 이탈의향 청년은 가족!

Q. 귀하께서 신앙생활을 하는(했던) 가장 큰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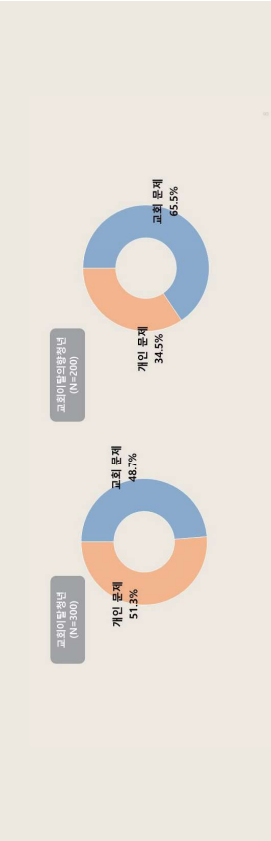
4. 교회 이탈/ 교회 이탈 의향 이유(순위)

교회 이탈 이유, 이탈 청년은 '개인적 문제', 이탈의향 청년은 '교회의 부정적 모습'!



4-1. 교회 이탈/ 교회 이탈 의향 이유(교회문제 vs 개인문제)

교회 이탈한 청년들의 실제 이유는 교회적 문제가 개인적 문제보다 높지 않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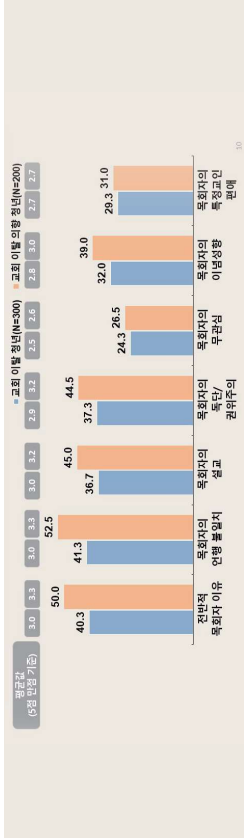


II. 교회 이탈요인

1. 관계 요인: 목회자와의 관계

목회자의 언행을 일치로 인해 교회에 떠나고 청년들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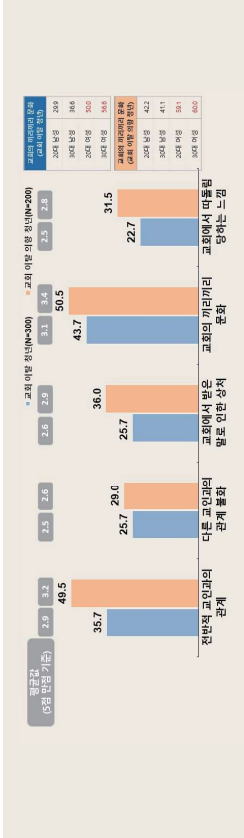
Q. 향음벌교 회를 떠나자 고민한 적이 있다. 그런데 '이름'이



1-1. 관계 요인 : 교인과의 관계

고회 내 관계적 요인, '끼리끼리 문화'가 가장 큰 이탈 요인! 특히 2030 여성층에게 더욱 크게 작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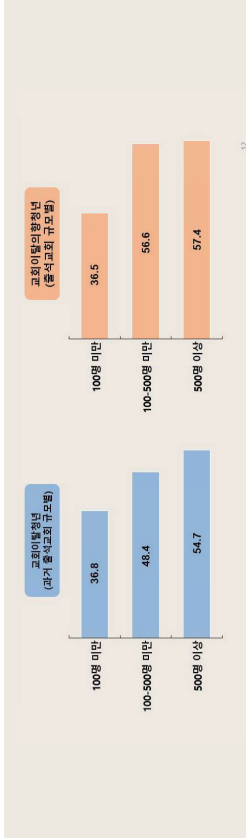
Q. 항목별 교회를 떠나고자 고민한 적이 있다. 그렇다면, 어떤



1-2. 관계 요인: 교인과의 관계(끼리끼리 문화)

교회 내 끼리끼리 문화, 대형교회 일수록 심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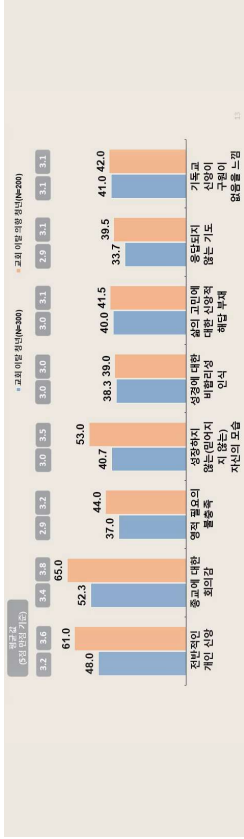
교회의 끼리끼리 문화로 교회를 떠날 고민을 했다.



2-1. 개인적 요인 : 개인 신앙

화신은 개인신앙으로 인해 교회를 떠나려고 하거나 청년들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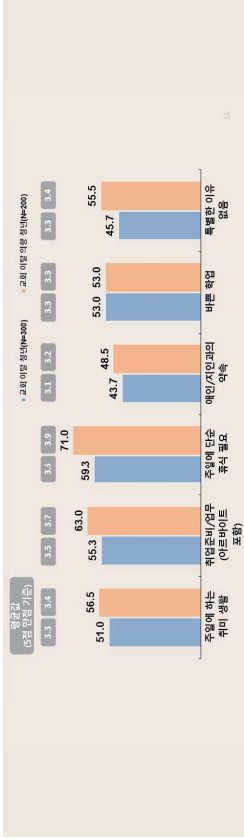
Q. 항문병을 고치려고 하면 꼭 고민한 적이 있다. 그렇다면, 비열



2-2. 개인적 요인: 개인 생활

교회이탈 청년 '주일의 개인시간 확보'가 가장 큰 핵심 이탈 요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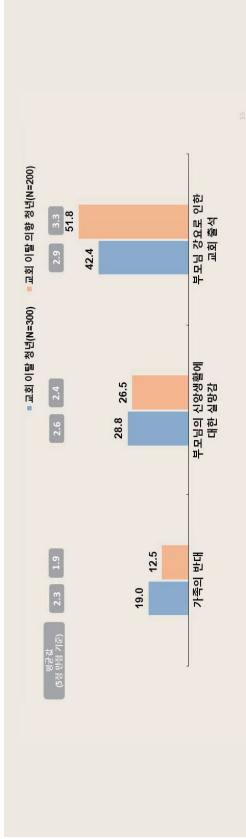
Q. 항목별 교회를 떠나고자 고민한 적이 있다. 그렇다면, 비영



3. 가정 요인

교회이탈 청년 '부모의 강요'가 오히려 반발 키워! 신앙의 자발성을 이끌어낼 수 있는 교회적 차원의 교육과 관계형성 필요!

Q. 향목별 교회회를 떠나고자 고민한 적이 있다. 그렇다면 '이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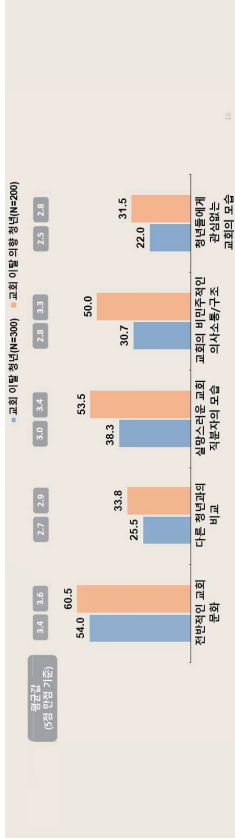


4-1. 교회 문화 요인 : 교회 문화

교회청년 '실망스러운 직분자', '비민주적 의사소통으로 이탈' 고려!

기성세대 성도들이 신앙이 붙어 가는 성숙한 그리스도인 모습과 민주적인 의사소통 구조 마련 필요!

Q. 항목별 교회를 떠나고자 고민한 적이 있다' 그렇다'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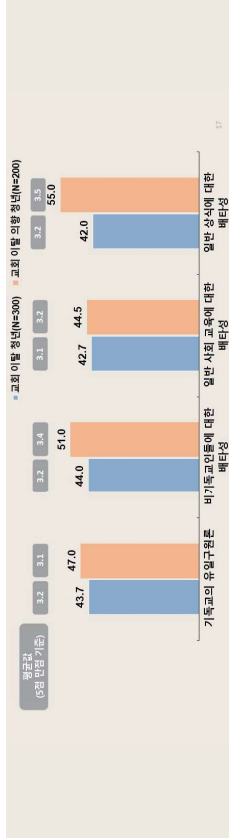


4-2. 교회 문화 요인 : 기독교의 배타성

교회이탈 청년 절반은 기독교의 배타성으로 인해 이탈 고려!

청년들에게 충분한 신학적 이해없이 전달되는 단편적인 배타성은 오히려 교회 이탈을 부추길 수 있어!

Q. 항목별 교회를 떠나고자 고민한 적이 있다' 그렇다' 비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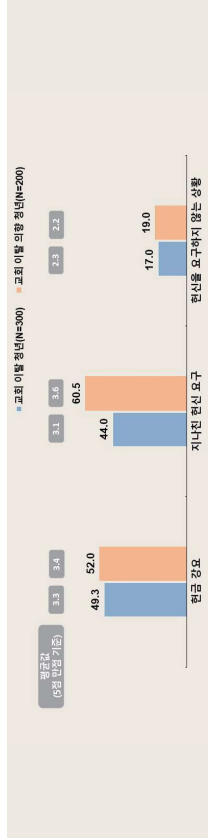


4-3. 교회 문화 요인 : 헌신 요구

'지나친 헌신요구와' '힘겨움'으로 인해 떠나는 교회 청년들!

신앙에 혼란을 겪고 있는 이탈 청년들에게는 '헌신'과 '강요' 대신 돌봄을 우선적으로!

Q. 항목별 교회를 떠나고자 고민한 적이 있다' 그렇다' 비율



5. 교회 이탈 요인 영향력 분석

교회 이탈의 영향력 : '개인' > '교회 문화' > '헌신' 순!

교회 이탈 청년			교회 이탈 의향 청년		
요인 분류	요인	영향값	요인 분류	요인	영향값
개인 생활	주일에 단속 휴식 필요	58.3	개인 생활	주일에 단속 휴식 필요	71.0
	주말엔(일요일)부터			주말엔(일요일)부터	
	주말엔(일요일)부터	55.3		주말엔(일요일)부터	65.0
개인 생활	전반적인 교회 문화	54.0	개인 생활	전반적인 교회 문화	63.0
	(비민주적, 이단성명)			(비민주적, 이단성명)	
개인 생활	비본 화업	53.0	개인 생활	비본 화업	61.0
	주일에 하는 찬미 생활	52.3		주일에 하는 찬미 생활	60.5
개인 생활	주일에 하는 찬미 생활	51.0	개인 생활	주일에 하는 찬미 생활	56.5
	주일에 하는 찬미 생활	48.3		주일에 하는 찬미 생활	55.5
개인 생활	주일에 하는 찬미 생활	45.7	개인 생활	주일에 하는 찬미 생활	34.0
	주일에 하는 찬미 생활			주일에 하는 찬미 생활	

III. 교회 이탈/이탈 의향자 분석

1. 주로 드러낸/드리는 예배

교회 이탈 가능성이 있는 청년, '장년예배'에 숨어 있음!

Q. 귀하가 교회를 다니는 당시에는 어떠한 예배를 드리셨습니까? 여러 개를 드렸다면 가장 중점적으로 드렸던 예배를 선택해주세요.

Q. 귀하는 현재 어느 부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여러 개를 드리고 있다면 가장 중점적으로 드리는 예배를 선택해주세요. [단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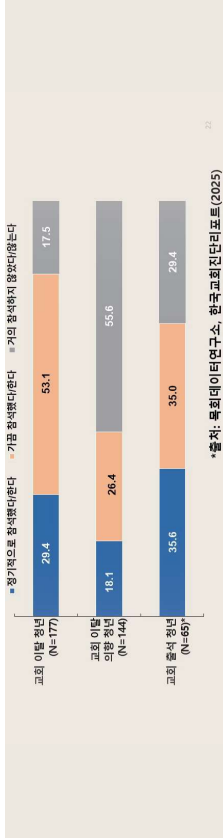


2. 신앙 소그룹 참석 정도

교회 일반청년보다 이탈청년이 소그룹 활동 더 적어!

Q. 그렇다면, 귀하는 얼마나 자주 소그룹 모임에 참석하십니까? [단수응답]

Q. 그럴 귀하는 얼마나 자주 소그룹 모임에 참석하십니까? [단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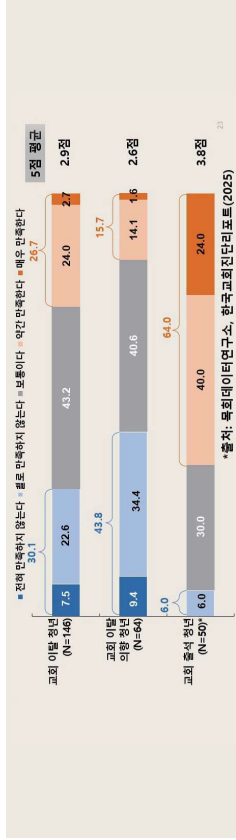


2-1. 신앙 소그룹 만족도

이탈 청년, 소그룹 참여해도 만족도가 일반 청년대비 현저하게 떨어져!

Q. 귀하가 참석했던 소그룹 모임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단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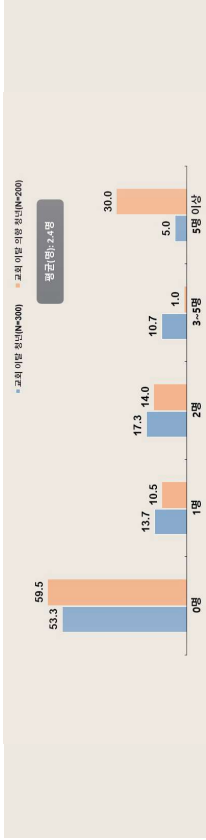
Q. 귀하는 현재 참석하는 소그룹에 얼마나 만족하십니까? [단수응답]



3. 교회 내 마음을 터놓고 이야기 할 사람

이탈청년 절반 이상, 교회 내 마음 터놓고 이야기 할 사람 없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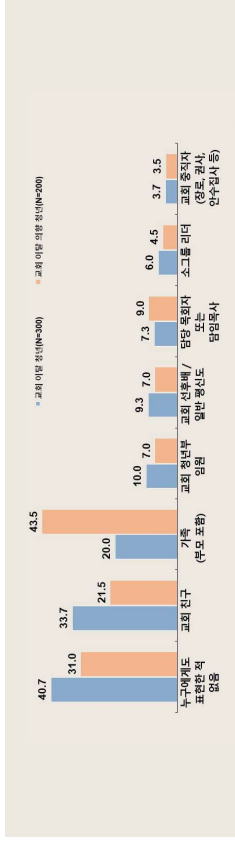
Q. 귀하가 현재 마음을 터놓고 교회에서 이야기를 나눌 사람이 있습니까? 있다면 몇 명입니까? [단수응답]



4. 교회 이탈 의향을 표현했던 대상

이탈 청년 10명 중 4명, 아무에게도 이탈의향 털어놓지 못해!

Q. 귀하가 교회를 떠나기 직전에(귀하는 교회를 떠나고 싶은 마음을 누군가에게 표현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그 마음을 표현한 대상은 누구입니까? 모두 선택해주세요. [중복응답]



5. 교회 이탈 의향을 표현한 후 본인의 상태

이탈의향 상담 해봤자 변화는 없고, 오히려 이탈 의향 증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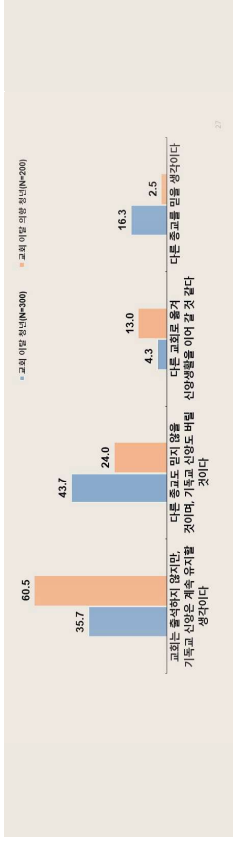
Q. 이야기를 나눴을 때, 귀하의 상태는 어떻게 변화하였습니까? [단수응답]



6. 향후 종교생활 계획

교회이탈 > 가나안성도 > 무종교인의 흐름으로 진행됨!

Q. 귀하는 앞으로 기독교 신앙에 대해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까? [단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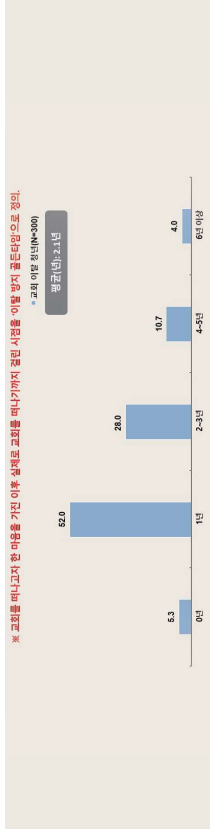


배우자 소득

7. 교회 이탈방지 골든타임(교회 이탈 청년)

교회 이탈청년의 이탈방지 활동 2년 2년 안에 그들을 잡고야 함!

Q. 귀하가 교회를 떠나고 싶은 마음을 갖게 된 이후 얼마만에 교회를 떠나셨습니까? (예시: 2024년에 교회를 떠났고, 2022년부터 교회를 떠날 마음이 생겼다면 '2를 기입하시면 됩니다.) [단수응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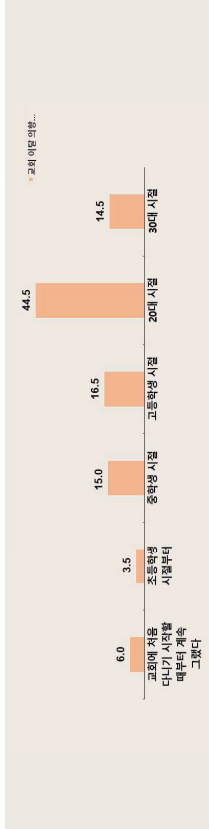


8. 처음으로 교회를 이탈하고 싶었던 시점(교회 이탈 의향자)

교회 떠나고 싶다고 느낀 시기, 20대!

Q. 귀하가 처음으로 교회를 떠나고 싶다고 느낀 시기는 언제였습니까?

* '떠나고 싶었던 시기'는 처음으로 그런 생각이 비시점을 의미합니다. [단수인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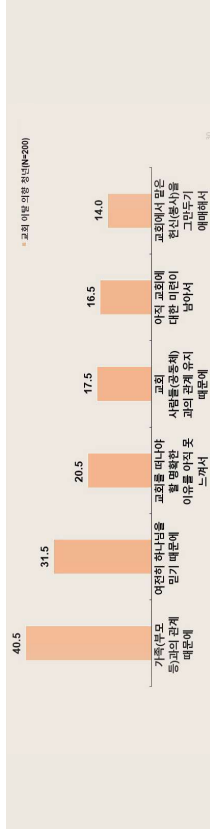


9. 아직까지 교회를 이탈하지 않은 이유(교회 이탈 의향자)

아직까지 교회를 이탈하지 않은 이유, '부모 때문'!

Q. 귀하가 아직 교회를 떠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다. 이 중 중요한 순서대로 2가지만 체크해 주십시오. [2순위 선택이 없다]



배우자 소득

1. 교회 이탈을 막아주는 가장 중요한 요인: '가족'

- 교회 이탈 청년은 종교적 배경 없이 교회를 다닌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태신앙'은 20.0%에 불과했고, 3년 중 일 이상(38.7%)은 '진구신후배'를 통해 교회를 처음 다닌다기 시작했다.
- 반면, 교회 이탈 의향 청년은 모태신앙이거나 부모를 통해 교회에 출석하기 시작한 비율이 78.0%로 대부분이었다.
- 즉, 종교개혁 가정 배경이 있는 청년은 가족이라는 신앙 유전 요인이 존재하, 종교적 배경이 없는 청년은 그 교회 장사가 약한 상황일

<제어>

비기독교 가정에서 자란 청년들에게 대해 교회의 지도적 인장자 마련이 필요함. 결혼적 가족이 아니라도 교회 공동체가 이들에게 가족과 같은 역할을 다해줄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함. 예를 들어, 정기적 관계 형성 스킴, 멘토링, 사적인 장서 나눔이 가능한 신앙 동반자 제도 등이 마련되어야 함.

2. 이탈 청년은 부서 예배 대신, 장년 예배에 술이 있다!

- 이미 교회를 이탈한 청년의 65.0%는 과거에 부서 예배가 아닌 장년 예배에 주로 참석함.
- 이탈의향 청년 역시 현재 예배에 출석하고 있으며, 부서 예배 참석자는 37.0%에 불과함.
- 교회 및 공동체 활동이 활발한 부서 예배 대신,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 장년 예배로 이동해 조용히 머물고 있는 상황임.
- 특히 20대에 처음으로 이탈의향이 가장 많이 보이는 시기이므로, 장년 예배를 드리는 20대를 주목해야 함.

<제언>

부서 예매에서 장년 예매로 옮긴 청년들이나 이미 장년 예매에 출석 중인 2030세대를 집중적으로 살펴볼 필요가 있음. 이들이 이탈 전 단계에서 조종하기를 두고 있는 신호일 수 있으므로, 이들을 위한 케어가 필요한. 우선적으로 이들을 청년부서로 유인하는 전략이 필요함.

3. 교회학을 다닌다는 이야, '최고' '가장' 때문에, '구원과 영생을 위해서' 거의 없

- 교외 이탈 청년이 과거 교회를 다녔던 이유 중 가족의 권유로가 30.7%, 교외 이탈 의향 청년은 43.0%로 나타났다.
- 반면, '구원과 영생을 위해서'라는 응답은 각각 4.0%, 10.5%에 그쳐 기독교 신앙의 핵심 동기가 거의 직통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됨.

<제어>

교회사와 신앙의 전통을 계승하는 것은 교회의 본질인 구원과 영생에 대한 고리 교육과 신앙적 체험이
 이들에게 단순한 교재의 정을 넘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인 구원과 영생에 대한 고리 교육과 신앙적 체험이
 반드시 병행되어야 함.

4. 개인주의 성향 vs 공동체성 강화, 두 요인의 전략적 접근

- 교회 이탈 청년과 이탈 의향 청년의 가장 핵심적인 이탈 요인은 '개인생활'로 나타났다.
- 특히 '주말의 단순 휴식', '취업 및 아르바이트', '취미 활동' 등이 주된 사유로, 이는 공동체 중심의 신앙생활보다 개인의 삶과 시간 확보를 우선시하는 가치관이 반영된 결과임.
- 이러한 경향은 교회가 강조해온 공동체주의적 신앙관과 본질적으로 충돌함.

<제언>

현대 청년 세대, 특히 MZ세대는 개인주의적 신앙 소비 성향을 보이고 있음, 이에 따라 교회는 청년사역에 있어 청년들의 개인주의적 성향과 교회 본연의 공동체성 강화라는 반대되는 두 가지 요인을 전략적으로 다져 인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음.

단기적 대응보다는 장기적으로 전략적인 접근이 요구됨.

5. 이탈 의향 청년, 헌신 이전에 정서적 공감과 돌봄 필요

- 이탈 청년은 '헌금강요'를 이탈 요인으로 인식하였으며, 이탈의향 청년은 '지나친 헌신요구'를 주요 이탈 요인으로 응답함.
- 헌신은 신앙의 성장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하지만, 신앙이 흔들리는 단계에 있는 청년들에게는 부담이 됨.

<제언>

아직 구원에 대한 확신이 부족하거나 신앙에 혼란을 겪고 있는 이탈의향 청년들에게는 헌신 이전에 정서적 공감과 돌봄 중심의 접근이 우선되어야 함.
이후, 신뢰가 회복되고 자발적인 신앙 동기가 생겼을 때, 헌신에 대한 마음 열리도록 지혜롭게 유도.

6. 소외된 청년들을 품을 수 있는 교회 문화 형성!

- 교인과의 관계 중 '교회의 끼리끼리 문화'에 대한 불만이 가장 높은 응답률을 보임.
- 특히 교회규모가 클수록 이러한 폐쇄적 문화가 더욱 심화되며, 이는 청년들의 교회 이탈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제언>

'끼리끼리 문화'는 청년들의 소속감 형성을 가로막고, 신앙 공동체로서의 통합성을 훼손함.
결과적으로 청년들은 공동체 내에 정착하지 못하고 이탈하게 되는 것임.
따라서 교회는 진정성있는 관계의 소그룹, 개방적 리더십, 포용적 분위기 등을 통해 소외된 청년들이 자연스럽게 공동체에 스며들 수 있는 문화를 형성해야 함.

7. 교회 이탈 방지 골든타임: 2년

- 교회를 떠나고자 하는 마음을 품은 이후 실제로 교회를 이탈하기까지의 평균 기간은 21년으로 나타남.
- 즉, 청년들이 이탈 의향을 처음 보인 시점부터 실제로 교회를 떠나는 시점까지의 최대 기간은 약 2년이라는 것임.

<제언>

'이탈 방지 골든타임'을 지켜 출석 패턴, 말과 행동의 변화, 소속감 약화 등 이탈 징후를 조기에 포착하고 대응하는 체계 마련이 필요함.

8. 이탈 청년을 위한 상담 기구 & 매뉴얼이 필요하다!

- '교회 내에서 마음을 터놓을 사람이 없다'는 응답은 이탈 청년 53.3%, 이탈 의향 청년 59.5%에 달함.
- 교회 내 이탈 의향을 털어놓았음에도 실제 이탈 의향에 변화가 없었던 비율은 이탈 청년 64.6%였으며,
- 이탈 의향 청년의 약 3명 중 1명은 오히려 이탈 의향이 더 강해졌다고 응답함.
- 이는 이탈 청년들이 고립된 상태이거나, 고민을 주변사람(가족, 교회친구, 담임목사 등)과 공유해도 실질적인 변화 없이 오히려 이탈을 더 증폭시킴

<제언>

현재 교회는 이탈청년을 위한 전문 상담 기구나 표준화된 대응 매뉴얼이 부재한 실정이며, 청년들의 이탈 방지를 위해 이들과 직접 연결되는 가족, 공동체 구성원, 목회자 등을 위한 상담 매뉴얼 개발 및 훈련이 필요한 상황임.

9. 가나안 청년을 다시 교회로!

- 향후 종교생활에 대해 '교회'에는 출석하지 않지만, 기독교 신앙은 계속 유지할 생각'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이탈 청년 35.7%, 이탈의향 청년은 60.5%로 나타남.
- 이들 중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는 청년은 26.2%로 4명 중 1명가량임.

<제언>

교회 이탈 청년들은 교회 출석은 중단했지만, 신앙을 완전히 버리기보다는 '가나안' 성도로 전환되는 경향을 보임. 특히 기존 교회에 대한 불만이 있거나, 주말 시간을 자기 주도로 보내고자 하는 이들이 많아, 이들을 위한 맞춤형 사역 전략이 요구됨. 단순히 "교회로 오라"는 접근이 아닌, 자연스럽게 다시 올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핵심이며 다음과 같은 접근이 필요함.

1. 영상 중심 SNS 콘텐츠 개발: 감성적 공감과 신앙적 자극을 줄 수 있는 짧은 영상, 카드뉴스, 실시간 피드 콘텐츠 제작
2. 온라인 기반 영적 상담소 및 소그룹 운영: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신앙 고민을 나눌 수 있는 온라인 플랫폼 구축
3. 기존 예배를 넘는 실험적 예배: 비정형적인 시간과 공간에서,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대안 예배/모임 모델 제시